



농촌진흥청-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업무협약식
일자: 2021. 11. 25.(목) 장소: 농촌진흥청 제2회의실

농업 인재들과 '화합의 장'

농진청, 27일까지 '4H중앙경진대회' 개최
청년 농산업 아이디어 경진 등 부문별 진행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25일부터 27일까지 농촌진흥청 일원 및 온라인(유튜브 농촌진흥청 채널)에서 '2021년 제49회 4H중앙경진대회' (이하 경진대회)를 연다. 이번 경진대회는 지역별 행사 참여 인원 최소화 행사장 인원 분배로 밀집도 낮추기, 출입자 명부 작성, 발열 증상 확인, 손소독 등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진행한다. 1954년부터 열리기 시작한 4-에이치(H) 중앙경진대회는 각 지역을 대표하는 청년4-에이치(H)회원의 우수한 활동사례를 공유하고, 다양한 영농기술을 선보이며 농업기술의 확산과 농업 문화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청년4-에이치(H)회원의 우수 활동을 포상하고, 농업 역량을 향상할 수 있는 다양한 경진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화합과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 4-에이치(H)는 지(知: Head, 현명한 머리), 덕(德: Heart, 충성스런 마음), 노(勞: Hand, 부지런한 손), 체(體: Health, 건강한 육체)의 이념을 실천하는 민간 자율운동이다. 올해 경진대회는 '새로운 농업(New Agriculture)!' 인제NA, 아디서NA, NA답게 라는 표어 아래 ▲청년 농산업 아이디어 경진 ▲모의 대중 투자(크라우드 펀딩) 경진 ▲실시간 소통 판매(라이브 커머스) 경진 ▲우리 지역 영상일기(브이로그) 경진 ▲청년농업인 활동사진 경진 ▲지역 청년농업인 농산물 경진 등 총 6개 부문으로 나눠 진행된다. 청년 농산업 아이디어 경진 부문은 ▲농업 분야 특허기술 및 연구 성과 등을 활용한 창업 및 제품 개발 ▲정 보통신기술(CT)을 활용한 생산·가공 및 유통 분야 개선안 ▲농산업 미개척 분야 신규 창업 ▲농촌융복합산업과 연계한 부가가치 창출 방안 등 총 4개 분야에 대한 청년들의 참신한 생각을 공모한다. 모의 대중투자 경진 부문은 대중투자를 위한 거버넌스(플랫폼)를 활용하여

실제 결제가 이뤄지지 않는 가상 재원을 마련하는 것으로 ▲우수 농장 ▲우수 가공식품 ▲농촌체험 3개 분야로 나눠 진행한다. 또한 청년 농업인들의 유통 역량 강화를 위한 실시간 소통 판매 경진과 지역의 특색과 관광자, 특산품 등을 이야기 형식으로 소개하는 우리 지역 영상일기 경진대회를 연다. 25일에 열리는 개회식은 현장 행사와 확장 가상 세계(메타버스) 공간에서 진행됐다. 현장 개회식에 참여하는 인원 중 일부는 증강현실(AR) 기기를 착용, 확장 가상 세계에서 경진대회를 체험했다. 허태웅 농촌진흥청장은 "청년4H회원들이 미래 농업 인재로서 역량을 제고하고 지역사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교육·기술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국4-H중앙연합회 지준호 회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묵묵하게 영농 활동을 이어가는 청년4H회원들이 이번 경진대회에 참여해 위로와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행사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김윤상 기자

'내년에 심을 벼 보급종 신청하세요'

국립종자원 전북지원, 내년 1월 28일까지
신동진·동진찰 등 벼 보급종 8품종 2240톤

국립종자원 전북지원(지원장 박희수)은 2021년산 벼 정부 보급종에 대해 25일부터 2022년 1월 28일까지 전북 지역 시·군 농업기술센터와 읍·면·동 주민센터(농업인상담소 포함)를 통해 종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전북 도내에 공급되는 보급종은 8품종 2,240톤으로 신동진벼 1,505톤, 동진찰벼 380톤, 해품(중생종) 115톤, 해당쌀(조생종) 128톤, 수광(2020년산) 48톤, 새누리 32톤, 미품 20톤, 운관 12톤이다. 신동진의 올해 공급량은 1,505톤으로 작년 공급량인 1,240톤 대비 21%가량 증가했다. 수광은 적년제 생산으로, 20년도에 생산 및 비축하고, 발아율 등 종자검

사에 합격한 품종이다. 올해 또한 벼 보급종의 이종소독을 방지하기 위해 비소독 종자만 신청 가능하므로, 농업인들은 올바른 운탕 처리 및 약제소독을 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신청한 종자는 내년 1월 24일부터 3월 31일까지 신청 농가 근처의 지역농협을 통해 공급할 계획이다. 한편, 전북지원은 벼 보급종 생산에 차세대 기술인 드론을 활용해 키다리 병을 검사하는 등 고품질 종자를 생산하는 데에 힘쓰고 있다. 보급종 신청·공급 관련 문의 사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국립종자원 전북지원(063-530-3620) 또는 해당 지역 농업기술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유호성 기자

국토안전관리원, 군산시와 건설안전 협업체계 구축

국토안전관리원(원장 박영수, 이하 관리원)은 지난 24일 군산시(시장 강임준)와 건설안전 확보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는 김영준 시장을 비롯한 군산시 담당자들과 서영운 호남지사장 등 관리원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서 관리원과 군산시는 중·소규모 건설현장 안전점검, 건설공사 안전관리에 필요한 정보 및 기술 교류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또한, 근로자의 안전 확보에 필요한 자료와 컨설팅 제공도 협약 내용에 포



합했다. 서영운 지사장은 "지역의 건설사고 줄이기를 위해 중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호성 기자



연료전지 발전설비 제품검사 등록 제조시설 현판식 개최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박지현)가 탄소중립 시대의 새로운 대체에너지로 떠오르고 있는 연료전지 발전설비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또 한걸음을 보냈다. 한국전기안전공사 25일, 김권중 기술이사와 두산퓨얼셀(주) 문형원 상무 등 양 기업 관계자가 함께 한 가운데 두산퓨얼셀 익산공장에서 연료전지 발전설비 제품검사 등록 제조시설 현판식 행사를 가졌다. 익산공장에서 생산하는 100kW 초과 연료전지 발전설비 제품과 제조시설의 초기검사를 성공리에 완료하며 안전성을 인증했다는 의미다. 공사는 지난 10월부터 약 한 달간 두산퓨얼셀 익산공장 제조시설의 품질 시스템 적정성과 제품의 설계, 성능 등에 관한 시험 검사를 실시하고 안전 여부를 확인했다. 올해 시행된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르면, 내년 4월부터는 연료전지 발전설비의 경우 초기검사를 완료하고 제조시설을 등록한 공장에 한해 출하가 가능하다. 김권중 기술이사는 "이번 익산공장 시설의 성공적인 검사 완료를 통해 연료전지 제품의 제조와 시설 전반에 관한 전주기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했다"면서, "앞으로 연료전지 생산 민간 기업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데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제일건설, 오늘 '익산 제일풍경채 센트럴파크' 견본주택 오픈

생활인프라 '풍부' · 주거환경 '쾌적'

내달 3일 특별공급
6일 1순위 청약
24일부터 정당 계약



제일건설 '익산 제일풍경채 센트럴파크' 투시도

지난 23일 사이버 모델하우스를 통해 모습을 공개했던 익산 제일풍경채 센트럴파크가 26일 견본주택을 열고 본격적인 분양 일정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제일건설(주)이 25일 밝혔다. 견본주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예방을 위해 홈페이지를 통한 방문 예약 접수를 받고 있다. 관람객들은 마스크 착용 및 개인 소독을 마친 후에 입장이 가능하다. 익산 제일풍경채 센트럴파크는 민간공인 특례사업을 통해 선보이는 아파트로 익산시 마동 88번지 일원에 자리할 예정이며, 지하 2층~지상 최고 27층, 12개동, 전용면적 59~107㎡, 총 1566가구 규모로 들어선다. 전용면적 별로는 ▲59㎡ 1597가구 ▲74㎡ 1567가구 ▲84㎡A 508가구 ▲84㎡B 268가구 ▲84㎡C 214가구 ▲107㎡ 261가구 등이다. 익산 제일풍경채 센트럴파크는 오는 12월 9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6일 1순위 청약이 진행된다. 당첨자 발표는 13일이며, 정당계약은 24일부터 28일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쾌적한 주거환경 갖춘 입지, 풍부한 생활인프라 누리는 익산 新주거중심지 랜드마크
익산 제일풍경채 센트럴파크는 민간공인 특례사업을 통해 들어서는 아파트인 만큼 단지 안팎으로 녹지가 펼쳐져 입주주민들이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을 전망이다. 단지 인근으로는 공인화 사업을 통해 조성되는 수도권 공원이 약 32만㎡ 규모로 들어서며, 이를 통해 문화공원과 자연생태공원, 체험학습공원 등 특색을 갖춘 18개 테마의 다양한 산책로와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다. 단지 외부는 1.3km의 산책로가 단지를 둘러싸고 있으며, 단지 내에는

쾌적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중앙광장이 조성될 예정이다. 또한, 자연형 계류를 통해 물소리를 감상할 수 있는 물소리마당, 화려한 초화류가 식재된 휴게 공간인 초화원 등 제일풍경채만의 조경 특화시설을 곳곳에서 만나볼 수 있다. 구도심 인접지역에 신도시급 개발로 들어서 풍부한 주거 인프라를 통한 익산의 새로운 주거중심지로 평가받는 마당에 들어선다는 점도 주목도가 높다. 일대에는 소규모 상권을 비롯해 대형마트와 행정복합센터, 유천생태습지 등이 위치해 편리한 생활을 누릴 수 있으며, 반경 500m 내 이리동중학교와 동남초등학교 등이 자리하고 있어 자녀교육환경도 좋다. 또한, 익산 국가산업단지, 익산 국가산업단지 등이 가까운 직주근접 입지에 자리하고 있어 풍부한 수요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명품 주거 브랜드 제일풍경채에 걸맞은 다양한 특화 설계 적용돼... 비규제 수혜도 눈길
익산 제일풍경채 센트럴파크는 제일건설(주)의 많은 시공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우수한 상품성도 돋보인다. 우선 단지는 전 가구가 풍부한 일조량과 채광을 누릴 수 있는 남향 위주로 배치되며, 전 타일이 선호도 높은 4Bay 위주로 조성돼 높은 개방감을 누릴 수 있

다. 또한 타입에 따라 알파룸과 드레스룸, 팬트리 등이 제공돼 넉넉한 수납공간을 누릴 수 있다. 단지는 넉넉한 동간거리를 갖춰 세대간 프라이버시 및 일조권 확보에 유리하며, 피트니스 센터, GX룸, 골프연습장, 실내체육관 등 대단지 규모에 걸맞은 수준 높은 커뮤니티 시설이 마련될 예정이다. 또한, 각 세대당 1.5대의 넉넉한 주차공간을 확보해 입주주민들의 편의를 도울 예정이다. 전주시 등 인근 지역과는 달리 익산은 비규제 지역이라 이에 따른 랜덤에 공급되는 대규모 브랜드단지인 만큼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마동 일대가 익산의 새로운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내외 조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익산=이득훈 기자



NH농협은행 전북본부는 25일 도내에 위치한 닭고기 전문기업인 (주)동우팜투테이를 찾아 2021년 자랑스런 농식품기업 賞 현판식을 진행했다.

'자랑스런 농식품기업' 되신걸 축하드립니다'

NH농협은행 전북본부, 동우팜투테이를 찾아 현판식

NH농협은행 전북본부(본부장 장기요)는 25일 도내에 위치한 닭고기 전문기업인 (주)동우팜투테이를(대표 이계창)을 찾아 2021년 자랑스런 농식품기업 賞 현판식을 진행했다. 올해로 8회째를 맞는 자랑스런 농식품기업은 농협은행과 거래 중인 농식품기업 중 기업 경영성과, 성장잠재력 등을 중심으로 우수기업을 선정하는 상이다. 올해 전국적으로 선정된 10개의 기업 중 관내에서 (주)동우팜투테이와 농업회사법인(주)화산, 2개의 기업이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특히 올해부터 수상기업 선정 시 ESG 경영 실천을 통한 지속가능한 농업·농식품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에 우대점을 적용했다. 수상

기업에는 대출금리 우대와 세무·회계 등의 농식품기업컨설팅 무료 제공, 관로 확대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주)동우팜투테이는 종계부터 부화, 사육, 생산, 가공 유통까지 전 과정을 통합 운영하는 닭고기 전문기업으로 사육과 자연, 동물과의 조화를 경영 모토로 삼고 있으며, 농업회사법인(주)화산은 장애인 고용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있는 도내 대표 ESG 실천 기업이다. 장기요 본부장은 "농협은행은 지속적인 도내 우수 농식품기업 발굴 및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동반성장하는 ESG 가치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건보, 11월분 보험료 부과자료 변경 홍보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지역가입자 세대에 11월분 보험료부터 2020년도 귀속분소득(국세청)과 2021년도 재산과표(지방자치단체)를 월별 보험료에 반영·산정한다고 25일 밝혔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시 반영하는 소득과 재산을 최근 자료로 변경해 2021년 1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1년 간 적용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업자가 6월말까지 국세청에 신고한 2020년 귀속분 소득금액은 10월중공단에 통보되어 11월 보험료부터 적용하고, 각 지자체에서 2021년 6월 1일 소유 기준으로 확정된 재산세 과표금액은 10월중 공단에 통보되어 11월 보험료부터 적용된다. 공단은 2021년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시 재산공제(재산과표금액에 따라 500만원~1,200만원)를 500만원 추가 확대하여 보험료 부담을 완화했으며, 재산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지역가입자 전환된 피부양자는 한시적으로 보험료의 50%를 경감할 예정(21. 경감기간 등 고시 시 발령 예정)이며, 향후, 보험료 부과 체계 2단계 개편 시 재산 기본공제를 5,000만 원으로 확대해 재산보험료 부담을 더욱 완화할 예정이다. 한편 각 지역가입자 세대는 11월분 보험료를 12월 10일까지 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하여야 하며,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아래 서류를 준비해 가까운 공단지사(1577-1000)에 조정신청을 하면 보험료를 조정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남원=김희기 기자